

삼성전자 005930

2Q23P - 아쉬운 실적 = 반작용의 촉매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454-4862
sunwoo.kim@meritz.co.kr

RA 김동관
02. 6454-4880
dong-kwan.kim@meritz.co.kr

반도체 실적 둔화 지속과 선방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삼성전자는 2Q23 매출 60.0조원 (-5.9% QoQ)과 영업이익 0.6조원 (-6.3% QoQ)의 잠정실적을 발표. 최근 견조한 주가 상승 속 (2Q23 내 주가 상승률 14%) 우호적 환율과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 개선 추이 등을 감안 시 시장 눈높이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나, 이에는 다소 아쉬운 수준으로 평가됨

동사의 2Q23 실적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부문별 영업이익의 경우 금일 잠정실적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당사는 [DS(반도체) -4.2조원], [SDC 0.8조원], [MX/NW 3.1조원], [VD/가전 0.6조원]으로 추정함 (표1). 그 밖에도 하만 등 기타 부문에서도 0.3조원 수준의 추가 영업이익이 예상됨

3Q23 실적은 계절성에 기반해 전사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SDC 및 가전 사업부 등의 실적은 소폭 개선되겠지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은 동사의 실적 설명회 기조 설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최근 서버 및 스마트폰 시장의 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동사의 감산 규모 확대 및 설비투자 축소 의지 표명 여부가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됨

부문별 실적 살펴보기

사업부 별 추정치를 살펴보면,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영업손실 3.7조원으로 부진한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음. DRAM의 판가와 출하량은 각각 -9%, +18% 내외의 QoQ 변화율을 기록. NAND의 경우 -9%, +5%로 추정됨. 반면 LSI의 경우 실적이 전분기 대비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전망 수요 둔화 속 가동률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8인치 수요는 더욱 빠르게 냉각되고 있기 때문. 해당 부문에서는 0.5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SDC 사업부는 다양한 원가절감 활동이 더해지며 OLED 영업이익 1.1조원 가량이 기록되었으나, 대형디스플레이의 적자요인(-0.3조원)이 지속됨

MX (구 무선사업부)의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 출하량이 각각 5,300만대, 580만대로 동사의 기존 기대치 대비 소폭 아쉬운 수준을 기록함. 모바일 전방 시장은 6월부터 빠르게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 연간 출하 계획을 내려잡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함. 당사는 현재 2.4억대의 동사 스마트폰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5~10%의 추가 하향 조정도 가능한 상황임

VD/가전의 경우 글로벌 수요 약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전분기 극히 부진했던 가전 사업부는 BEP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됨. TV사업부의 경우 분기 중 여전히 낮은 TV 패널가에 기반해 6,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됨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의 변모가 필요한 상황. '자기실현적 예언'이 절실

당사가 지난해 예상했던 '2Q23 Samsung Pivot'은 결국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 언급으로 현실화됐음. 하지만 공급 축소 폭은 여전히 수요 둔화세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임. PC와 모바일 재고가 정상화되어 간다고는 하나 오히려 세트업체들의 하반기 출하계획은 최근 하향 조정되는 중임. 당사의 최근 2023년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이제 공급자들의 운영전략은 더욱 '이성적'으로 변모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전개 중임

특히 업황 선도력·결정력이 있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선택은 1) 23~24년 설비투자액 축소 (vs 지난 4월말 1Q23 실적설명회에서는 투자 유지를 강조), 2) HBM 등 신규 메모리 개발과 양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강조하며, 그에 수반되는 고비용을 감안한 전략 구사, 3) 2H23에 예상되는 삼성 그룹 컨트롤타워 변화와 특수관계인의 등기임원 복귀에 따른 수익성 위주 경영전략 변화에 기반하리라 예상됨. 이에 메모리 업황은 제한적 공급 속 수요 증진 요인 (신규 서버 CPU 플랫폼 출시 및 공급 감축 결정)이 발생하며 4Q23부터 개선 (DRAM 판가 반등)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2Q23 실적 설명회는 7월 27일 (목)으로 예정됨]

(조원)	잠정실적	메리츠	차이	1Q23	% QoQ	2Q22	% YoY
	2Q23P	2Q23E	Diff				
매출액	60.0	64.7	-7.2%	63.7	-5.9%	77.2	-22.3%
영업이익	0.6	0.2	142.6%	0.6	-6.3%	14.1	-95.7%
DS	-4.2	-3.9	적자지속	-4.6	적자지속	10.0	적자전환
SDC	0.8	0.6	35.3%	0.8	7.4%	1.1	-20.6%
MX/네트워크	3.1	2.9	6.2%	3.9	-21.3%	2.6	18.3%
VD/가전	0.6	0.4	39.4%	0.2	218.0%	0.4	68.6%

자료: 삼성전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